
V. DC형 퇴직연금의 수요자 분석

1. 분석개요 및 자료

가. 분석개요

DC형 시장에서 금융기관의 운영방안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제시하기 위해 퇴직연금시장의 주요 수요자인 기업과 개별 근로자에 대한 실증분석이 요구된다. 특히 DC형 퇴직연금은 기업이 주요 수요자인 DB형 퇴직연금과 개인이 주요 수요자인 IRA와 달리 기업 및 개인 모두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특수한 퇴직연금제도 및 시장이다.

기업대상으로는 퇴직연금시장의 잠재가입기업 중 특성별로 어떠한 기업이 어떠한 퇴직연금제도를 선호하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며, 개인대상으로는 개인 특성별 퇴직연금직립금 현황, 퇴직연금사업자 선호도, 자산운용 형태 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실증분석은 우선 기술적 통계를 활용한 분석에 기초하였다. 하지만 기술적 통계에만 기초한 분석은 각 변수들의 상호관계들로 인해 충분한 실증분석의 시사점을 제공할 수 없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각 변수들의 독립적인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회귀분석을 통한 실증분석을 추가로 실시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나. 사용자(기업) 자료

기업대상 분석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를 사용하였다. 사업체패널조사는 현재 2006년과 2008년에 조사된 자료가 있으며, 퇴직연금제도가 2005년 12월에 도입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2008년 자료에 한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³⁶⁾ 사업체패널조사는 정부출연 정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조사(승인번호 33603)로서, 2002~2004년간의 선행조사를 마치고, 2006년부터 새롭게 조사 표본을 구성하여 동일한 표본을 대상으로 격년마다 조사가 이루어지는 패널조사이다. 2007년 전체표본은 1,744개이며 사업체패널조사의 설문은 각 사업장의 근로자현황과 재무현황에 대한 정보를 기본으로 인사담당용, 노사관계업무 담당자용, 노동조합 대표 및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용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표 V-1〉 사업체패널조사 설문대상 및 내용

설문종류 및 대상	설문내용
사전설문지	근로자 고용현황
	재무정보
인사담당자 응답용 설문	사업장 특성
	고용현황 및 고용관리
	보상 및 평가
	인적자원관리 및 작업조직
	인적자원개발
	응답자 정보
노무담당자 응답용 설문	노사관계(노사관계업무 담당자)
	노사관계(노사협의회 담당자)
근로자대표 응답용 설문	노사관계(노동조합 대표)
	노사관계(노사협의회 근로자 대표)

36) 2006년 및 2008년에 조사된 자료는 각각 2005년과 2007년에 대한 내용이므로 2006년도 자료는 본 분석에 큰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다. 근로자 자료

기업 특성별로 선호하는 퇴직연금의 형태를 실증분석하기 위해 한국노동연구원원의 「사업체패널조사」를 활용하였다. 사업체패널조사는 통계청의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에 수집되어 있는 전국의 사업장 가운데 농림어업 및 광업을 제외한 전 산업에서 상용근로자 30인 이상 규모인 모든 사업장을 모집단으로 활용한 자료이다. 즉, 샘플자료의 모집단은 농림어업 및 광업을 제외한 30인 이상 규모 사업장 36,066개이며, 샘플은 공공부문을 제외한 35,707개 사업장을 기준으로 분석한 산업 및 규모별 표본 추출률을 적용하였다.

근로자에 대한 분석대상은 보험연구원이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 9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자료이다. 현재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가용자료가 부재하여 수도권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령에 근거한 비례할당을 추출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의 내용은 퇴직연금 가입 및 전반적인 지식, 자산운용 및 상품, 금융기관 선정, 개인퇴직계좌에 대한 가입선호도, 연금수급 및 노후준비, 노동시장 및 관련 기타 변수들, 마지막으로 인구통계적 정보에 대한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표 V-2〉 근로자 설문대상 및 내용

구분		세부내용
설문 대상	근로자	20대 이상 근로자 900명
설문조사 방법		면접조사
설문조사 형태		기입식, 단답식, 체크식, 5점 척도식
설문조사 기간		2010. 11. 10 ~ 2010. 11. 30
설문내용		퇴직연금 가입 및 전반적인 지식
		자산운용 및 상품
		금융기관 선정
		개인퇴직계좌 가입선호도
		연금수급 및 노후준비
		노동시장 및 기타
		인구통계적 변수

2. 분석모형

사용자 샘플을 활용한 분석목적은 기업 특성별로 선택한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결과이다. 현재 퇴직연금제도는 크게 DB형, DC형, IRA로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종속변수가 이항변수(Binary Variable)이면서 선택변수인 다항로짓(Multinomial Logit)모형을 활용한 실증분석이 적합하다.

기본적으로 각 기업 특성별로 도입한 퇴직연금제도를 살펴보기 위해 기술적 통계를 활용한 분석을 실시한 이후 각 변수별 독립적인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이산변수 모형을 활용한 회귀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회귀분석에서 특정 퇴직연금제도를 선택한 잠재적인 값(y^*)과 설명변수 벡터(x)와의 내재된 관계식은 (식 1)과 같이 설정된다.

$$y^* = x'\beta + u \quad (\text{식 1})$$

(식 1)에서 β' 와 u 는 각각 계수의 벡터와 오차항을 나타낸다. 종속변수가 선택적 이산변수일 경우에는 다항로짓(Multinomial Logit)을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의 경우 퇴직연금의 종류 중에서 DB형, DC형, IRA 중 선호하는 퇴직연금제도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항로짓이 가장 적합하다. 또는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향후 IRA에 가입할 때 선호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근로자는 은행,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증권사 중 하나를 선택하는 분석에도 다항로짓이 적합하다.

$$P(Y_i = j) = g(X\beta_j) = \frac{\exp(\alpha_j + X_i\beta_j)}{1 + [\exp(\alpha_j + X_i\beta_j)]}, \quad j = 1, 2, \dots, M-1 \quad (\text{식 2})$$

M 은 종속변수의 가짓수이며, Y 가 $1, \dots, M$ 의 값을 취할 확률은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P(Y_i = 1) &= 1 - g(X_i\beta_1) \\
 P(Y_i = j) &= g(X_i\beta_{j-1}) - g(X_i\beta_j), \quad j = 2, \dots, M-1 \\
 P(Y_i = M) &= g(X_i\beta_{M-1})
 \end{aligned} \tag{식 3}$$

하지만 2007년도 사업체패널자료의 샘플 중 IRA를 선택한 기업의 개수 자체가 일부에 지나지 않아 IRA를 제외한 이후 로짓(Logit) 또는 프로빗(Probit) 모형³⁷⁾이 적합하며, 이 경우 M=2가 되므로 (식 2)는 로짓모형이 된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들에 대한 성향에 대해 분석하기 위해 한계효과보다는 추정계수의 부호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로짓모형 및 다항로짓과 같은 실증분석에서는 한계효과보다는 Odds Ratio를 계산하는 것이 해석이 용이하여 Odds Ratio를 활용하였다.³⁸⁾

퇴직연금 사업자의 경우 가입한 기업 및 근로자의 신규가입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한 고객을 유지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그러므로 퇴직연금 사업자를 변경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누가 퇴직연금 사업자를 주로 변경하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며 분석을 위해 일반화선형모형(Generalized Linear Model)을 사용하였다. 일반화선형모형이란 종속변수에 영향을 주는 1개 이상의 독립변수의 효과를 측정하는 기존의 선형모형을 일반화시킨 모형으로 랜덤성분(Random Component), 체계적 성분(Systematic Component), 연결함수(Link Function)로 구성된다. 랜덤성분은 종속변수(또는 반응변수) Y의 확률분포를 규정하는 성분이다. 표본의 크기가 N이며 종속변수의 관측 값을 Y_i 라고 할 때 일반화선형모형은 N개의 Y들이 서로 독립임을 가정하며 일반화선형모형의 랜덤성분이 지수족(Exponential Family)에 한해 Y의 확률분포를 결정하게 되는 것

37) 로짓모형(Logit Model)과 프로빗모형(Probit Model)은 종속변수가 이항변수(Binary Variable)일 때 적용하는 통계적 분석모형으로 표본특성을 반영하는 오차항이 로지스틱분포(Logistic Distribution)를 따른다고 가정하고, 프로빗모형은 표준정규분포(Standard Normal Distribution)를 따른다고 가정한다.

38) 이산변수에 대한 구체적인 실증분석 내용은 Cameron A. C.와 Trivedi P(2005)의 Microeconometrics를 참고하기 바란다.

이다. 체계적성분은 모형의 예측변수로 사용되는 설명변수를 규정하여 확률분포의 평균인 Y 의 기댓값 $E(Y) = \mu$ 을 나타내며, 연결함수는 랜덤성분 ($E(Y) = \mu$)과 체계적성분($X\beta$)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일반화선형모형에는 매우 다양한 분석모델이 존재하는데, 종속변수가 퇴직연금 사업자의 변경 횟수 등과 같은 건수변수의 분석에 적합한 일반화선형모형으로 가장 기본적인 포아송(Poisson)모형이 있으며 이밖에 음이항분포(NB: Negative Binomial), Zero Inflated poisson(ZIP), Zero Inflated Negative Binomial(ZINB), Hurdle, Zero-Truncated Poisson(ZTP), Zero-Truncated Negative Binomial(ZTNB)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음이항분포를 활용하였으며, 음이항분포는 포아송모형에서 발전한 모형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시간적인 또는 공간적인 단위구간 내에서 '성공'의 출현 횟수 Y 가 일어날 확률을 분석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일반화선형모형은 포아송(Poisson)이며 확률변수 Y 의 밀도함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f(y; \mu) = \frac{e^{-\mu} \mu^y}{y!} \quad (39) \quad (식 4)$$

y 는 0, 1, 2, 3.....의 성공 횟수를 나타내며 μ 는 단위구간 당 '성공'의 평균 출현 횟수이다. 포아송은 평균과 분산이 같다는 다소 제한적인 가정⁴⁰⁾에 기반을 두어 만들어진 분포로 실제 분석에 많은 한계점을 가진다. 실제 데이터를 분석하다보면 대부분의 경우 분산이 평균보다 큰 과대산포(Overdispersion)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데이터가 과대산포를 가질 경우, 포아송이 아닌 음이항분포(Negative Binomial)가 적절한 분석모형이다.

39) 모든 y 값에 대하여 $f(y) \geq 0$ 이고 $\sum f(y) = 1$ 이므로 이것은 확률분포의 조건에 부합된다.

40) $E(y; \mu) = Var(y; \mu) = \exp(x\beta) = \mu$

$$f(y: x) = \frac{\Gamma(y + \mu)}{\Gamma(\mu)\Gamma(y + 1)} \left(\frac{\delta}{\delta + 1}\right)^\mu \left(\frac{1}{1 + \delta}\right)^y \quad (\text{식 5})$$

음이항분포는 포아송과 달리 분산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고 평균의 함수로 나타내어진다.

$$V(y) = \mu(1 + \alpha\mu), \quad \alpha > 0 \quad (\text{식 6})$$

과대산포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포아송모형을 적용할 경우 표준오차(Standard Error)가 실제보다 작게 측정되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도 않은 독립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분석될 오류를 범하게 된다. 그러므로 귀무가설 $H: \alpha > 0$ 인지를 테스트하여 α 가 0보다 클 경우 포아송이 아닌 음이항분포를 분석모델로 선정한다.⁴¹⁾

3. 사용자 분석결과

가. 기술적 분석결과

분석에 사용된 퇴직연금에 가입한 기업 수는 265개이며, 60% 정도가 DB형에 가입하였고 평균 근로자 수는 385명이다. 기업 중 근로자 수가 50명 이하, 50명 초과 100명 이하, 100명 초과 300명 이하, 300명 초과인 비율이 각각 18.1%, 31.3%, 9.0%, 29.4%로 분포되어 있다.

기업 중 30세 이하 근로자보다 50대 이상 근로자 수가 많은 기업의 비율은 32.1%에 달했으며, 전체 근로자 중 평균 비정규직 비율은 9.9%이다. 근로자 중 30세 이하의 비중이 24.2%이며, 50세 이상 비율은 13.9%였다. 기업 근로자의

41) 본 연구에서는 귀무가설이 기각되어 음이항분포를 활용하였다.

고령화 정도가 DC형 퇴직연금 가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50세 이상 비율이 30세 이하 비율보다 높으면 1의 값을 부여하고, 반대의 경우 0의 값을 부여하여 더미변수(Dummy Variable)를 만들었다.⁴²⁾

기업의 근로자는 관리자, 전문가,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로 구분되며, 근로자 중 전문가 비율을 독립변수로 통제하였다. 근로자 중 전문가 평균 비율은 20.5%였는데, 전문가 변수를 통제한 이유는 이직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직종의 비중을 이용하여 이직률이 DB형 및 DC형 퇴직연금형태에 주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이다.

다음은 로그값으로 변환한 매출액을 독립변수로 통제하였는데 이는 기업의 재무구조 또는 기업규모가 퇴직연금 도입형태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서이다. 무엇보다 종업원의 능력 및 실적을 평가하여 계약에 의하여 연간 임금액을 결정하고 이를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는 능력 중시형 임금지급체계를 가진 기업이 어떠한 퇴직연금 도입형태를 선호하는지 분석하기 위해 ‘연봉제’란 독립변수를 사용하였다.

또한, 노사 간 체결한 고용안정협약이 존재할 경우 1의 값을 부여하고, 없으면 0의 값을 부여하여 더미변수를 만들어 통제하였다. 다음으로 노동조합의 유무를 통제하고 기업의 설립연도부터 2007년 기간(기업사업 기간)에 로그값을 취해 독립변수로 통제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업이 속한 산업 또는 업종은 퇴직연금의 도입형태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일 수 있지만 가용할 수 있는 업종변수가 부재하여, 정규직 비율을 대신 사용했으며 노조의 유무도 업종과 상당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2) 전체 근로자 중 50세 이상 근로자의 비중이라는 연속변수를 사용했을 경우에도 분석결론은 동일했다.

〈표 V-3〉 독립변수 및 기술적 통계

(n=151)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저값	최고값
DC형 가입률	0.411	0.493	0	1,000
근로자 수	385.272	735.021	6,000	6330,000
근로자 수 50 이하	0.181	0.385	0	1
근로자 수 100 이하	0.313	0.464	0	1
근로자 수 300 이하	0.090	0.287	0	1
근로자 수 300 이상	0.294	0.456	0	1
30세 이하 비율	0.242	0.209	0	1
50세 이상 비율	0.139	0.169	0	0.929
50세 이상 비중 높음	0.321	0.467	0	1
비정규직 비율	0.099	0.192	0	0.986
전문가 비율	0.205	0.300	0	0.964
매출액	770088.1	2511398	282	24600000
로그(매출액)	11.046	2.207	5,642	17,017
연봉제	0.362	0.482	0	1,000
고용안정협약 유무	0.170	0.376	0	1,000
노조	0.279	0.449	0	1,000
기업 사업기간	23.019	19.529	1,000	122,000
로그(기업 사업기간)	2.804	0.849	0	4,804

나. 통계적 분석

기업이 DC형 퇴직연금을 도입하고 있으면 종속변수에 1의 값을 부여하고, DB형 퇴직연금을 도입하고 있으면 0의 값을 부여한 이항변수(Binary Variable)에 로짓(Logit)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기업의 규모를 나타낼 수 있는 근로자 수는 퇴직연금 형태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⁴³⁾

43)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의 샘플이 주로 30명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DC형 퇴직연금을 선호하는 기업이 샘플에서 제외되어 근로자 수가 DC형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이유로 유의하지 않는 결과가 도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각각의 근로자 수를 나타내는 더미변수 이외에도 추가로 근로자 수나 근로자 수를 로그값으로 변환한 독립변수들을 사용하더라도 결론을 동일하였다. 반면 매출액이 큰 기업일수록 DC형보다는 DB형 제도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대기업일수록 DB형 제도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근로자 수가 많다고 보다는 매출액 등에 근거한 기업의 재무현황 및 수익구조가 설명력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출액 증가가 수익성 증대로 연계되어 재무성과가 안정적인 기업일 확률이 높아 DB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근로자 중 50대 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DB형 제도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고령자일수록 DC형보다는 DB형을 선호하는 근로자의 성향이 기업의 퇴직연금제도 도입단계로까지 연계되어 나타났을 것으로 이해된다. 무엇보다 이직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이해되는 전문가의 비중이 높은 기업은 DB형보다는 DC형 제도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DC형은 DB형 퇴직연금과 달리 매 적립금이 본인의 퇴직계좌로 이전되어 이직 시 통산이 용이한 DC형의 장점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또한 전문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결정 요인들이 상대적으로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 근로자 스스로 DC형을 선호하고 이러한 근로자의 선호가 퇴직연금 도입 형태에까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흥미로운 것은 매년 본인의 임금수준이 개인의 능력에 따라 결정되는 연봉제와 같은 임금체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의 경우 DC형 제도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안정협약이 있는 기업이나 기업의 사업기간이 증가할수록 DC형 퇴직연금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근로자들의 근속연수가 상대적으로 길어 퇴직연금제도를 통해 기업이 책임져야 할 임금에 대한 부담증가가 DC형 퇴직연금의 선호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노조의 유무나 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율 등은 퇴직연금 도입 형태에 대해 설명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의 경우 존재 여부보다는 노조 성격의 강경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자료의 한계로 인해 분석하지 못한 것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표 V-4〉 사업자의 퇴직연금 형태(DC형) 선호도 분석

독립변수	추정계수	표준오차	z
근로자 수 50 이하	-0.013	0.579	-0.020
근로자 수 100 이하	0.148	0.393	0.380
근로자 수 300 이하	-0.040	0.618	-0.070
50세 이상 비중 높음	-0.819	0.431*	-1.900
비정규직 비율	-0.285	0.998	-0.290
전문직 비율	1.304	0.650**	2.010
로그(매출액)	-0.374	0.105***	-3.570
연봉제	0.937	0.371***	2.520
고용안정협약	1.096	0.669*	1.640
노조	-0.450	0.616	-0.730
로그(기업 사업기간)	0.439	0.241*	1.820
_cons	1,865	1,313	1,420

주: 1) 로짓(Logit)모형을 적용함.

2) 독립변수 중 필요할 경우 로그값을 취해 최대한 표준분포를 지향함.

4. 근로자 분석결과

가. 기술적 분석결과

1) DC형 퇴직연금 선택이유

DC형 퇴직연금가입자(n=900)를 대상으로 DC형 퇴직연금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 〈표 V-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퇴직금을 별도로 적립하기 때문에 수급권이 보장되어서(54.0%)”, “회사가 선택하여 어쩔 수 없어서(45.0%)”,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률 및 급여수준 기대 가능(38.7%)” 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V-5〉 DC형 퇴직연금 선택이유

(단위: %)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전체		54.0	45.0	38.7	19.6	15.6	9.4	8.9	5.7	3.1
회사규모	소기업	55.9	44.5	37.4	16.0	15.5	10.5	9.7	6.3	4.2
	중기업	55.6	45.6	35.5	21.4	16.4	8.9	7.5	6.6	2.5
	대기업	48.9	44.4	46.2	19.7	13.9	9.4	10.8	3.1	3.1

주: ① 퇴직금을 별도로 적립하므로 수급권이 보장되어서 ② 회사가 선택하여 어쩔 수 없이 선택
 ③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률 및 급여수준 기대 가능 ④ 스스로 적립금을 운용할 수 있어서
 ⑤ 다른 사람들이 많이 선택하므로 따라서 선택 ⑥ 정보가 없어 잘 모르고 선택
 ⑦ 다른 형태와 별반 차이가 없다고 생각되어 ⑧ 직장의 고용이 불안정해서
 ⑨ 이직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DC형 퇴직연금 선택이유를 회사규모별에 따라 세분화하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모두 동일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 반면, 대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퇴직금을 별도로 적립하기 때문에 수급권이 보장되어서(48.9%)”,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률 및 급여수준 기대 가능(46.2%)”, “회사가 선택하여 어쩔 수 없어서(44.4%)” 순으로 나타나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보다 DC형 퇴직연금의 수익성에 보다 관심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DC형 퇴직연금 선택이유에서 볼 때 특징적인 것은 퇴직연금제도의 장점이라 할 수 있는 수급권보호를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는 점, 근로자의 자율적인 선택보다는 퇴직연금제도의 선택이 기업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2) DC형 퇴직연금 적립액 수준 및 추가납입 선호도

DC형 퇴직연금에 납입하는 액수(월평균)에 대해 질문한 결과, 〈표 V-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균적으로 월 22만 7천 원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여자보다 남자가, 학력이 높을수록,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회사규모가 큰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일수록 월평균 기여 수준 또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로 납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V-7〉 참조). 이는 많은 근로자가 추가납입을 통해 노후소득보장의 강화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표 V-7〉 DC형 퇴직연금 추가납입 의향

(단위: %)

구분		있음	이미 추가 납입 중	없음
전체		45.1	10.7	44.2
성별	남자	46.6	12.0	41.4
	여자	43.3	9.0	47.8
학력	고졸 이하	37.8	8.7	53.5
	대졸	46.4	9.5	44.1
	석사/박사	45.5	24.7	29.9
연령	20대	43.1	7.3	49.6
	30대	43.5	12.2	44.3
	40대 이상	48.7	11.3	40.0
월급여	200만 원 이하	41.0	9.7	49.3
	201만~300만 원	42.0	9.0	49.0
	301만 원 이상	52.3	13.4	34.2
회사 규모	소기업	34.9	8.4	56.7
	중기업	44.9	10.9	44.2
	대기업	56.5	12.6	30.9

근로자의 추가납입 의향을 속성별로 보면 여자보다는 남자가, 고졸보다는 대졸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추가납입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이러한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회사규모가 큰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일수록 추가납입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향후 정부가 정책적으로 고령화에 따른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역할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거나 세제혜택을 확대시킬 경우 DC형 퇴직연금 가입뿐만 아니라 가입액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퇴직연금사업자는 개별 근로자를

상대로 영업단계에서 가입액을 증대시킴으로써 시장점유율을 확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 특성별 추가납입에 대한 선호도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통계분석을 추가로 실시하였다.⁴⁴⁾

3) 운용자산별 선호상품 수 및 비중

운용자산별로 선호하는 자산운용상품 수와 비중, 선호하는 운용기관에 대해 질문한 결과를 <표 V-8>과 <표 V-9>에 요약·정리하였다. 선호하는 퇴직연금의 운용자산 수에 대해 질문한 결과, <표 V-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리금보장형 상품 2개, 실적배당형 상품 1.6개 등 총 3.6개의 운용자산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V-8> 퇴직연금 운용상품 수 평균

(단위: 개)

구분	원리금 보장형	실적배당형	합계
운용 상품 수	2.0	1.6	3.6

원리금보장형과 실적배당형에 대한 운용자산 비중을 질문한 결과에서는 실적배당형보다 상대적으로 원리금보장형(59.8%) 중심으로 자산운용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V-8> 참조). 물론 원리금보장의 자산운용 비중이 높기는 하지만 자산운용규제가 매우 심하고 자산운용 스타일이 보수적인 근로자들을 고려할 때 40.2%의 실적배당형 비중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월인에서 나타난 것처럼(<표 V-5> 참조) 수익률을 제고하고 스스로 자산운용을 원하는 DC형 가입 근로자들의 선호가 자산운용에까지 연계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해된다.

44) <표 V-24>를 참고한다.

〈표 V-9〉 퇴직연금 운용상품별 운용자산 비중 평균

(단위: %)

구분		원리금 보장형	실적배당형
전체		59.8	40.2
성별	남자	57.7	42.3
	여자	62.4	37.6
학력	고졸 이하	63.0	37.0
	대졸	59.4	40.6
	석사/박사	58.1	41.9
연령	20대	62.0	38.0
	30대	59.5	40.5
	40대 이상	58.3	41.7
회사규모	소기업	59.0	41.0
	중기업	60.7	39.3
	대기업	58.6	41.4

속성별에서 보면 성별, 학력, 연령, 회사규모별 모든 속성에서 원리금보장형의 비중이 실적배당형 비중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징적인 것은 남자보다 여자가, 학력이 낮을수록, 20대 근로자가 원리금보장형에 대한 선호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다만, 원리금보장과 실적배당형 선호비중이 큰 차이는 보이지 않고 있으며 기술적 분석의 한계로 인해 구체적인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회귀분석을 통한 각 변수별 영향(partial effect)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자산운용 시 애로사항(문제점)

퇴직연금의 자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가장 큰 애로사항(문제점)이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 원금손실에 대한 불안감(31.9%),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부족(31.4%), 낮은 수익률(15.7%), 자산을 운용할 능력부족(6.8%) 순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표 V-10〉 자산운용 시 애로사항

(n=900, 단위: %)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전체	31.9	31.4	15.7	6.8	5.7	3.9	2.7	1.1	0.9	
성별	남자	33.3	28.9	16.9	5.2	6.0	4.6	3.0	0.8	1.2
	여자	30.1	34.6	14.2	8.7	5.2	3.0	2.2	1.5	0.5
학력	고졸 이하	24.4	37.8	15.7	10.2	5.5	3.9	0.8	1.6	0.0
	대졸	32.5	30.9	15.7	6.3	5.7	4.0	2.9	1.0	1.0
	석사/박사	39.0	26.0	15.6	5.2	5.2	2.6	3.9	1.3	1.3
연령	20대	28.0	31.9	18.1	5.6	6.0	6.0	2.6	1.3	0.4
	30대	34.2	32.3	13.9	5.7	6.0	3.0	3.3	1.4	0.3
	40대 이상	32.0	30.0	16.0	9.0	5.0	3.3	2.0	0.7	2.0
월급여	200만 원 이하	31.0	35.9	13.1	7.2	4.5	4.8	2.4	1.0	0.0
	201만~300만 원	31.4	30.4	16.3	6.1	7.1	3.5	2.9	1.6	0.6
	301만 원 이상	33.2	28.2	17.4	7.0	5.4	3.4	2.7	0.7	2.0
회사 규모	소기업	28.2	33.2	11.8	7.1	6.3	6.3	4.6	1.7	0.8
	중기업	34.4	31.7	14.8	7.1	5.7	3.4	1.1	1.1	0.7
	대기업	30.9	29.1	21.5	5.8	4.9	2.2	3.6	0.4	1.3

주: ① 원금손실에 대한 불안감

③ 낮은 수익률

⑤ 자산을 운용·관리할 시간 부족

⑦ 선택 가능한 상품의 부족

⑨ 주식 및 주식형펀드 투자 금지

②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 부족

④ 자산을 운용할 능력 부족

⑥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⑧ 금융기관의 교육, 상담 및 서비스 부족

따라서 보다 안정적인 자산운용과 투자를 위한 유용한 정보제공이 향후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징적인 것은 여자가 남자보다, 고졸 이하가 대졸 이상보다, 20대 이하의 연령층과 200만 원 이하의 소득수준에서, 그리고 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 부족을 자산운용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느끼고 있다는 점이다.

5) 퇴직연금 사업자 및 상품의 선정

현재 근로자가 어떠한 금융기관을 운용관리기관과 자산관리기관으로 선정하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 운용관리기관뿐만 아니라 자산관리기관으로서 은행을

압도적으로 선정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먼저 선정된 운용관리기관을 보면 은행(48.1%), 보험사(29.2%), 증권·투신사(22.7%) 순이며 학력이 석·박사이며 대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예상외로 보험사보다 증권·투신사의 선호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V-11〉 현재의 퇴직연금 운영 및 자산관리기관 (n=900, 단위: %)

구분		운용관리기관			자산관리기관		
		은행	보험사	증권/ 투신사	은행	보험사	증권/ 투신사
전체		48.1	29.2	22.7	46.3	29.9	23.8
성별	남자	46.6	27.5	25.9	44.6	27.9	27.5
	여자	50.0	31.3	18.7	48.5	32.3	19.2
학력	고졸 이하	50.4	35.4	14.2	48.8	33.9	17.3
	대졸	48.7	28.7	22.6	46.6	30.2	23.3
	석사/박사	39.0	23.4	37.7	40.3	20.8	39.0
연령	20대	54.7	27.2	18.1	56.0	25.9	18.1
	30대	45.9	29.6	24.5	45.9	29.6	24.5
	40대 이상	45.7	30.3	24.0	39.3	33.3	27.3
월급여	200만 원 이하	55.2	29.0	15.9	53.1	30.7	16.2
	201만~300만 원	49.4	30.4	20.2	50.6	29.8	19.6
	301만 원 이상	39.9	28.2	31.9	35.2	29.2	35.6
회사 규모	소기업	45.8	36.6	17.6	45.8	37.8	16.4
	중기업	52.2	26.7	21.2	48.7	27.1	24.1
	대기업	42.6	26.5	30.9	42.2	26.9	30.9

다음으로 선정된 자산관리기관으로는 운용관리기관과 유사하게 은행(46.3%), 보험사(29.9%), 증권·투신사(23.8%)순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특징적인 것은 월소득이 301만 원 이상인 근로자는 은행 및 보험사보다 자산관리기관으로 증권·투신사(35.6%)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이다.

은행, 보험사, 증권·투신사를 사업자로 선정된 이유를 살펴보면 〈표 V-12〉와 같다. 은행을 퇴직연금사업자로 선정된 이유로는 장기적이며 안정적 자산운

성을 기반으로 한 장기안정적인 자산운용능력이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확보될 필요가 있다.

특히 속성별로 보면 여자가 남자보다 가입자 교육 등 사후관리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산운용능력을 보다 중요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특징적인 것은 석·박사인 근로자의 경우 높은 수익률을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산운용능력 다음으로 고려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수익성 중시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30대가 20대 및 40대 이상보다, 회사규모가 큰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일수록 장기 안정적인 자산운용능력을 사업자 선정으로 보다 우선 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V-13〉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시 고려요인(중요도)

(n=900, 단위: %)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전체	37.3	19.4	12.8	11.1	10.9	4.6	1.0	0.9	0.8	0.8	0.4	
성별	남자	38.4	20.9	12.0	10.6	9.4	4.4	1.0	1.4	0.6	1.0	0.2
	여자	36.1	17.7	13.7	11.7	12.7	4.7	1.0	0.2	1.0	0.5	0.7
학력	고졸 이하	36.2	19.7	12.6	11.0	14.2	3.9	0.0	0.8	1.6	0.0	0.0
	대졸	37.4	20.3	13.2	10.3	10.9	4.2	1.1	0.6	0.7	0.9	0.4
	석사/박사	39.0	11.7	9.1	18.2	5.2	9.1	1.3	3.9	0.0	1.3	1.3
연령	20대	36.2	23.3	11.2	11.6	7.8	4.7	1.3	0.9	1.3	0.9	0.9
	30대	41.0	17.1	13.3	10.9	9.8	4.9	1.1	0.3	0.5	0.8	0.3
	40대 이상	33.7	19.3	13.3	11.0	14.7	4.0	0.7	1.7	0.7	0.7	0.3
월급여	200만원 이하	40.7	21.7	10.7	11.0	9.7	2.8	0.7	1.0	1.0	0.0	0.7
	201만~300만원	32.1	19.9	13.1	12.5	12.2	6.7	1.3	0.0	0.6	1.3	0.3
	301만원 이상	39.6	16.8	14.4	9.7	10.7	4.0	1.0	1.7	0.7	1.0	0.3
회사 규모	소기업	35.7	15.1	12.6	13.9	16.4	3.8	0.4	0.8	0.8	0.4	0.0
	중기업	36.9	22.3	14.1	8.7	10.3	3.4	1.4	0.9	0.5	0.9	0.7
	대기업	39.9	18.4	10.3	13.0	6.3	7.6	0.9	0.9	1.3	0.9	0.4

주: 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산운용 능력
 ③ 금융기관으로서 재무건전성 등 안정성
 ⑤ 가입자 교육 등 사후관리서비스
 ⑦ 퇴직연금제도의 설계 능력
 ⑨ 사회적 이미지
 ⑪ 접근 편리성

② 연금사업자로서의 전문성
 ④ 높은 수익률
 ⑥ 적절한 수수료
 ⑧ 연금자산의 성장 가능성
 ⑩ 다양한 상품 제공

우선 고려요인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들은 안정적이면서도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는 퇴직연금사업자 및 상품을 선호하지만, 퇴직연금의 자산운용이 단기가 아닌 장기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 퇴직연금사업자 및 상품 변경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들 중 1년간 1회 이상 변경한 근로자는 약 7.6%인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V-15〉 참조). 또한 변경한 사업자를 보면 보험회사에서 증권·투신사(23.9%), 보험회사에 다른 보험회사(19.6%), 은행에서 보험회사(19.6%), 은행에서 다른 은행(13.0%), 증권·투신사에서 다른 증권·투신사(10.9%) 순인 것으로 나타나 보험회사에서 증권·투신사로 사업자를 변경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와 같이 보험회사에서 증권·투신사로 사업자를 변경한 경우가 많은 이유로는 수익성 중시의 투자성향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속성별로 볼 때 여자보다 남자가, 고졸 이하보다 대졸 이상에서, 20대 이하보다 30대 이상에서, 201만~300만 원의 소득수준에서, 소기업 보다 중기업 및 대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보험회사에서 증권·투신사로 사업자 변경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V-15〉 가입자의 퇴직연금사업자 변경

(n=900, 단위: %)

구분	1년간 변경 (1회 이상)	변경사업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체	7.6	19.6	8.7	23.9	13.0	19.6	4.3	10.9	
성별	남자	6.6	19.0	4.8	28.6	9.5	14.3	9.5	14.3
	여자	8.7	20.0	12.0	20.0	16.0	24.0	0.0	8.0
학력	고졸 이하	14.2	16.7	16.7	16.7	33.3	16.7	0.0	0.0
	대졸	6.2	20.7	6.9	27.6	3.4	20.7	6.9	13.8
	석사/박사	9.1	20.0	0.0	20.0	20.0	20.0	0.0	20.0
연령	20대	5.6	30.0	10.0	10.0	40.0	10.0	0.0	0.0
	30대	8.4	16.7	5.6	27.8	5.6	16.7	11.1	16.7
	40대 이상	8.0	16.7	11.1	27.8	5.6	27.8	0.0	11.1
월급여	200만 원 이하	7.6	25.0	16.7	8.3	25.0	25.0	0.0	0.0
	201만~300만원	8.3	22.2	11.1	38.9	5.6	11.1	5.6	5.6
	301만 원 이상	6.7	12.5	0.0	18.8	12.5	25.0	6.3	25.0
회사 규모	소기업	3.8	60.0	0.0	20.0	20.0	0.0	0.0	0.0
	중기업	8.9	12.5	8.3	25.0	12.5	29.2	4.2	8.3
	대기업	9.0	17.6	11.8	23.5	11.8	11.8	5.9	17.6

주: ① 보험회사에서 다른 보험회사로

③ 보험회사에서 증권/투신사로

⑤ 은행에서 보험회사로

⑦ 증권/투신사에서 다른 증권/투신사로

② 보험회사에서 은행으로

④ 은행에서 다른 은행으로

⑥ 은행에서 증권/투신사

과거 1년 동안 퇴직연금자산의 운용을 변경한 적이 있는지, 퇴직연금가입상품을 바꿀 의향이 있는지, 가입상품을 바꿀 의향이 있으며 어떠한 상품으로 바꿀 의향이 있는지 근로자를 대상으로 질문하였다. 질문한 결과, 첫째, 전체의 8.1%가 1번 이상 퇴직연금자산의 운용을 변경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자보다는 남자가, 석·박사의 고학력에서 변경한 경험이 많았으며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월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대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변경한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향후 퇴직연금가입상품을 바꿀 의향이 있는냐는 질문에 전체의 41.4%가 바꿀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여 생각 외로 많은 근로자가 가입상품의 변경의향

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향후 근로자의 니즈에 부합한 다양한 퇴직연금자산 운용상품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잦은 상품변경으로 인한 퇴직연금사업자의 수익성 확대도 가능성을 나타낸다. 이러한 변경니즈는 상대적으로 남자보다 여자가, 20대보다는 30대 이상 연령층에서, 그리고 회사규모가 클수록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셋째, 바꾸기를 원하는 상품으로는 수익률이 높은 상품(57.1%)을 가장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안정성이 높은 상품(29.5%), 운용관리가 편한 상품(13.1%) 순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특징적인 것은 여자보다 남자가, 연령대가 증가하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회사규모가 클수록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상품은 보다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표 V-16〉 퇴직연금 자산운용 및 가입상품 변경 의향

(n=900, 단위: %)

구분	변경경험	변경의향	원하는 가입상품			
	1번 이상	있음	수익률 높은 상품	안정성 높은 상품	운용관리 편한 상품	
전체	8.1	41.4	57.1	29.5	13.1	
성별	남자	9.0	40.4	61.7	23.9	14.4
	여자	7.0	42.8	51.7	36.0	11.6
학력	고졸 이하	9.4	45.7	51.7	32.8	15.5
	대졸	7.5	40.2	57.1	30.0	12.5
	석사/박사	11.7	45.5	65.7	20.0	14.3
연령	20대	3.9	33.2	55.8	27.3	15.6
	30대	9.2	46.5	57.3	29.2	13.5
	40대 이상	10.0	41.7	57.6	31.2	11.2
월급여	200만 원 이하	4.8	41.0	51.3	31.9	16.0
	201만~300만 원	9.0	44.6	52.5	37.4	10.1
	301만 원 이상	10.4	38.6	68.7	17.4	13.9
회사 규모	소기업	7.6	37.8	52.2	35.6	12.2
	중기업	7.1	39.4	54.3	30.6	14.5
	대기업	10.8	49.3	65.5	22.7	11.8

7) 건강보험과의 연계

현재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실손형의료보험은 개인(근로자 포함)이 질병 또는 상해 등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를 보상하여 주고 있다. 퇴직 시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본인의 현재와 노후의 건강까지 보장하여 주는 운용상품이 있을 경우 이러한 상품조합에 가입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DC형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를 대상으로 질문한 결과, 생각이 있다고 응답한 근로자는 68.1%인 반면, 관심이 없다고 응답한 근로자는 31.9%에 그치고 있어 대부분의 근로자가 건강보장 가미 DC형 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를 근로자 속성별로 보더라도 변수 간 큰 차이 없이 고르게 선호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V-17〉 건강보장 가미형 DC형 상품 선호도 (n=900, 단위: %)

구분		건강보장 가미		가족종합건강보장 가미		
		생각있음	관심없음	생각있음	관심없음	
전체		68.1	31.9	74.9	25.1	
결혼여부	기혼	68.2	31.8	77.4	22.6	
	미혼	67.9	32.1	70.2	29.8	
부동산 소유 유무	소유	자택	66.6	33.4	74.5	25.5
		전세	70.5	29.5	74.2	25.8
	전월세	72.3	27.7	77.0	23.0	
연령	20대	67.7	32.3	72.0	28.0	
	30대	69.3	30.7	75.0	25.0	
	40대 이상	67.0	33.0	77.0	23.0	
월급여	200만 원 이하	63.8	36.2	69.3	30.7	
	201만~300만 원	69.6	30.4	75.3	24.7	
	301만 원 이상	70.8	29.2	79.9	20.1	
회사규모	소기업	65.1	34.9	74.4	25.6	
	중기업	65.8	34.2	72.4	27.6	
	대기업	75.8	24.2	80.3	19.7	
건강상태	건강함	69.6	30.4	76.1	23.9	
	보통	67.3	32.7	72.7	27.3	
	건강하지 않음	50.0	50.0	72.2	27.8	

또한, 퇴직 시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건강까지 보장해주는 운용상품(가족종합건강보장 가미형 DC형 상품)이 있을 경우 가입할 의향이 있느냐고 질문한 결과, <표 V-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74.9%의 근로자가 이 상품에 가입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속성별로 보면 기혼이며 전월세를 살고 있는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가족종합건강보장 가미형 상품을 보다 선호하고 있으며 연령대가 증가하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건강하면 할수록 선호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징적인 것은 대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소기업 및 중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보다 가족종합건강보장 가미형 상품을 보다 선호하고 있다는 점이다.

건강가미형 결합상품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근로자를 대상으로 원리금보장상품을 선호하는지 아니면 원리금보장상품에 건강보장까지 결합한 상품을 선호하는지 질문한 결과, 원리금보장상품의 선호도는 23.2%에 그치고 있는 반면, 원리금보장상품에 건강보장을 결합한 상품의 선호도는 76.8%로 높은 선호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실적배당형 상품과 실적배당형에 건강보장을 결합한 상품의 선호도를 근로자를 대상으로 질문한 결과, <표 V-18>에서 보는 것처럼 실적배당형 상품보다는 실적배당형에 건강보장을 결합한 상품을 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실적배당형에 건강보장을 결합한 상품의 선호도는 74.9%에 이르고 있는 반면, 실적배당형 상품의 선호도는 23.3%에 그치고 있다.

〈표 V-18〉 결합상품에 대한 선호도

(n=900, 단위: %)

구분		원리금보장형 기준		실적배당형 기준	
		원리금보장상품	원리금보장상품 +건강보장상품	실적배당형상품	실적배당형 +건강보장상품
전체		23.2	76.8	23.3	74.9
성별	남자	25.1	74.9	25.7	74.3
	여자	20.9	79.1	20.4	75.6
학력	고졸 이하	29.9	70.1	26.8	68.5
	대졸	21.6	78.4	22.1	76.4
	석사/박사	27.3	72.7	28.6	71.4
가구원 수	2명 이하	19.1	80.9	21.8	78.2
	3명	28.8	71.2	26.9	73.1
	4명	23.0	77.0	24.6	71.9
	5명 이상	18.7	81.3	14.9	85.1
연령	20대	22.0	78.0	20.7	77.6
	30대	22.8	77.2	23.9	76.1
	40대 이상	24.7	75.3	24.7	71.3
월급여	200만 원 이하	23.4	76.6	20.3	76.6
	201만~300만 원	25.0	75.0	25.3	73.4
	301만 원 이상	21.1	78.9	24.2	74.8
회사규모	소기업	20.6	79.4	19.7	76.9
	중기업	25.1	74.9	24.1	74.0
	대기업	22.4	77.6	25.6	74.4
건강상태	건강함	22.4	77.6	22.9	74.7
	보통	24.1	75.9	24.1	75.2
	건강하지 않음	30.6	69.4	25.0	75.0

8) 라이프사이클펀드 선호도

투자자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위험자산에서 안정자산으로 비중을 조절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이러한 점에서 근로자가 젊었을 때 자산을 위험자산 위주로 운용하다가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산의 일정비율만큼 자동적으로 안전자산 위

주로 조정되어 퇴직 시 수익률과 자금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라이프사이클 펀드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약 63.1%(3.59점)가 라이프사이클 펀드에 대해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어 라이프사이클 펀드 중심으로 자산운용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표 V-19〉 참조). 이를 근로자 속성별로 보면 여자보다 남자가, 미혼보다 기혼에서, 학력이 높을수록, 연령대가 높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라이프사이클 펀드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V-19〉 라이프사이클펀드 선호도

(n=900, 단위: %, 점)

구분		있다	약간 있다	보통	별로 관심없다	평균
전체		13.9	49.2	22.8	9.9	3.59
성별	남자	16.1	49.0	20.5	9.0	3.61
	여자	11.2	49.5	25.6	10.9	3.55
결혼 여부	기혼	13.9	53.1	19.9	8.5	3.63
	미혼	13.8	42.0	28.2	12.5	3.50
학력	고졸 이하	12.6	48.8	23.6	11.0	3.55
	대졸	13.6	49.1	23.4	9.6	3.58
	석사/박사	18.2	50.6	15.6	10.4	3.66
연령	20대	14.2	40.9	28.0	12.5	3.48
	30대	13.0	51.6	22.0	9.2	3.60
	40대 이상	14.7	52.7	19.7	8.7	3.65
월급여	200만 원 이하	14.1	43.1	26.9	13.1	3.53
	201만~300만 원	12.5	50.0	23.1	9.3	3.55
	301만 원 이상	15.1	54.4	18.5	7.4	3.68
회사 규모	소기업	11.3	47.1	29.4	10.9	3.56
	중기업	13.4	50.3	19.6	10.5	3.54
	대기업	17.5	49.3	22.0	7.6	3.70

9) 퇴직연금 전문회사 선호도

금융기관이 퇴직연금만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기존의 금융회사보다 선호할 것이냐고 질문한 결과, 보다 선호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44.5%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선호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10.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5점 척도 방식으로 산정하는 경우 3.40점으로 나타나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는 데에서도 알 수 있다.

〈표 V-20〉 퇴직연금 전문회사 선호도

(n=900, 단위: %, 점)

구분	매우 선호한다	선호한다	보통이다	선호하지 않는다	매우 선호하지 않는다	5점 평균
자회사방식의 퇴직연금 전문회사 선호도	7.3	37.2	45.2	8.2	2.0	3.40
금융회사특성결합방식의 전문회사 선호도	7.4	43.0	41.6	6.3	1.7	3.48

또한 퇴직연금사업자인 금융회사의 장단점을 보완하여 공동으로 퇴직연금 전문회사를 공동으로 설립할 경우 선호 여부를 질문한 결과에서도 50.4%가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선호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단지 8.0%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대부분은 자회사방식의 퇴직연금 전문회사나 여러 금융회사의 장점을 결합한 전문회사가 설립되는 경우 기존의 금융회사보다 이들 퇴직연금 전문회사에 보다 가입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DC형 퇴직연금시장의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향후 적극적으로 DC형 퇴직연금 전문회사 설립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10) 퇴직연금사업자 경쟁력 인식 수준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근로자의 경쟁력 인식을 평가한 결과(〈표 V-21〉 참조), 퇴직연금사업자의 전문성, 가입자 교육 및 컨설팅서비스 등에서는 보험회사가 은행 등 다른 사업자보다 경쟁우위에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자산운용능력, 재무건전성 등 안전성, 적정한 수수료 책정, 이용의 편리성 및 신속성, 사회적인지도 등에서는 은행이 보험사 등 다른 사업자보다 경쟁우위에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에 반해 증권사는 높은 수익률 및 연금자산의 성장가능성, 다양한 운용상품 제공 등에서 은행 및 보험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우위에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9개의 경쟁력 평가항목 중 근로자가 보험사의 경쟁우위를 인식하고 있는 항목은 2개 항목, 은행의 경쟁우위를 인식하고 있는 항목은 5개 항목, 증권사의 경쟁우위를 인식하고 있는 항목은 2개 항목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보험회사는 은행에 비해 경쟁력이 낮다고 인식하고 있는 재무건전성 등 안전성, 사회적 인지도, 이용의 편리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고 자산운용 수익률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자산 배분 전략의 수립 등이 요구되고 있다.

〈표 V-21〉 퇴직연금사업자 경쟁력 인식 수준

(n=900, 단위: %, 점)

구분		매우 높다	경쟁력 있다	그저 그렇다	경쟁력 없다	전혀 없다	5점 평균
전문성	은행	2.3	43.0	45.6	7.9	1.2	3.37
	보험회사	5.9	45.7	41.8	6.4	0.2	3.51
	증권사	6.2	43.3	40.3	9.3	0.8	3.45
자산운용 능력	은행	8.0	47.3	39.4	4.6	0.7	3.57
	보험회사	7.2	41.2	43.8	7.3	0.4	3.47
	증권사	5.8	41.3	43.0	9.0	0.9	3.42
교육, 제도설계, 컨설팅	은행	3.6	33.8	51.1	11.0	0.6	3.29
	보험회사	5.7	45.2	40.1	8.3	0.7	3.47
	증권사	5.3	42.2	43.4	8.1	0.9	3.43
재무건전성 등 안정성	은행	10.9	55.0	30.1	3.7	0.3	3.72
	보험회사	7.0	41.3	42.4	8.3	0.9	3.45
	증권사	7.0	36.4	45.7	9.9	1.0	3.39
적정한 수수료 책정	은행	5.8	31.4	48.2	13.6	1.0	3.27
	보험회사	4.6	29.9	49.3	14.3	1.9	3.21
	증권사	5.2	32.2	46.2	14.7	1.7	3.25
수익률 및 자산성장	은행	5.8	32.7	49.1	11.2	1.2	3.31
	보험회사	5.1	38.2	47.2	8.6	0.9	3.38
	증권사	8.6	45.2	39.0	6.2	1.0	3.54
이용 편리성, 신속성	은행	15.0	51.4	30.3	3.0	0.2	3.78
	보험회사	5.3	35.6	46.9	11.1	1.1	3.33
	증권사	5.1	34.2	49.6	10.2	0.9	3.32
사회적 인지도	은행	12.3	55.4	28.2	3.7	0.3	3.76
	보험회사	6.6	38.2	46.1	8.8	0.3	3.42
	증권사	6.2	38.3	47.0	7.8	0.7	3.42
다양한 운용상품 제공	은행	6.8	38.4	47.0	7.3	0.4	3.44
	보험회사	6.6	43.1	42.9	7.0	0.4	3.48
	증권사	9.2	47.3	38.9	4.0	0.6	3.61

11) DC형 가입 근로자의 개인형퇴직연금 가입선호도

근로자를 대상으로 중간정산 시, 이직 시, 퇴직 시 받은 퇴직금 등을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이관할 의향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체의 6.7%가 적극적으로 가입할 의향이 있다고 하였고 32.9%가 대체로 가입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17.4%가 대체로 가입할 의향이 없다, 5.6%가 전혀 가입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함으로써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V-22〉 참조). 퇴직연금사업자는 DC형 가입기업 및 근로자가 일반적으로 이직률이 높기 때문에 DC형 퇴직연금시장에서 파생되어 발생하는 IRA시장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표 V-22〉 근로자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이관) 선호도
(n=900, 단위: %, 점)

구분		적극적 가입 의향	대체로 가입 의향	보통	의향이 없는 편	전혀 없음	5점 평균
전체		6.7	32.9	37.4	17.4	5.6	3.18
성별	남자	7.2	33.1	38.0	16.9	4.8	3.21
	여자	6.0	32.6	36.8	18.2	6.5	3.13
학력	고졸 이하	9.4	32.3	36.2	19.7	2.4	3.27
	대졸	6.0	32.6	37.5	17.8	6.0	3.15
	석사/박사	7.8	36.4	39.0	10.4	6.5	3.29
연령	20대	7.3	28.9	35.8	19.4	8.6	3.07
	30대	6.5	32.6	40.2	14.7	6.0	3.19
	40대 이상	6.3	36.3	35.3	19.3	2.7	3.24
월급여	200만 원 이하	4.8	30.7	36.6	20.0	7.9	3.04
	201만~300만 원	8.7	31.1	39.7	16.3	4.2	3.24
	301만 원 이상	6.4	36.9	35.9	16.1	4.7	3.24
회사 규모	소기업	6.3	28.6	40.3	21.0	3.8	3.13
	중기업	6.6	33.0	36.4	17.1	6.8	3.15
	대기업	7.2	37.2	36.3	14.3	4.9	3.27

속성별로 보면 여자보다 남자가, 대졸보다 고졸 이하나 석박사가,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회사규모가 큰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일수록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대한 가입선호도가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DC형 퇴직연금제도와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간의 상호연계성, 즉 이관성은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즉 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의 은퇴자금이 소진되지 않고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통해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12) 퇴직금의 급부형태 선호도

근로자를 대상으로 퇴직금의 원하는 급부형태를 질문한 결과, 전체의 21.2%만이 일시금으로 지급받기를 선호한 반면, 전체의 40.4%와 38.3%는 각각 연금, 일부일시금·일부연금으로 지급받기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⁴⁵⁾ 따라서 연금세제혜택 등을 통한 연금전환을 보다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속성별로 퇴직금의 급부형태 선호도를 보면, 남자보다 여자가 다소 일시금에 대한 선호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대졸 이상보다는 고졸 이하의 학력에서, 40대 이상보다는 30대에서, 201만~300만 원 이하의 소득수준에서 일시금에 대한 선호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회사규모가 클수록 일시금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는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연금 또는 일부일시금·일부연금의 형태로 지급받기를 원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45) 실제로 우리나라 퇴직자들이 퇴직 시 주로 일시금을 수령하고 있는데, 적립단계에서 본인이 연금수령을 원하더라도 ① 실제로 퇴직연금을 수령 시 연금보다는 일시금에 제공하는 세제혜택이 크기 때문일 수 있으며, ② 퇴직연금 수령 시에는 기대와 달리 자녀 결혼 등 많은 목돈이 필요하기 때문일 수도 있으며, ③ 지금까지는 일시금을 수령했지만 최근 고령화 및 기대수명 증가가 사회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으로 인해 앞으로는 연금수령 비율이 실제로 높게 나타날 수 있으며, ④ 아직까지 퇴직연금 수령자들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향후 퇴직연금 수령 시 연금의 선호도가 매우 높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표 V-23〉 퇴직금의 급부형태 선호도

(n=900, 단위: %)

구분		일시금지급	연금지급	일부일시금 일부연금
전체		21.2	40.4	38.3
성별	남자	20.7	40.2	39.2
	여자	21.9	40.8	37.3
학력	고졸 이하	31.5	39.4	29.1
	대졸	19.1	41.1	39.8
	석사/박사	23.4	36.4	40.3
연령	20대	15.5	41.4	43.1
	30대	25.5	38.0	36.4
	40대 이상	20.3	42.7	37.0
월급여	200만 원 이하	22.4	37.6	40.0
	201만~300만 원	24.7	38.5	36.9
	301만 원 이상	16.4	45.3	38.3
회사 규모	소기업	18.9	43.7	37.4
	중기업	20.5	42.6	36.9
	대기업	25.1	32.7	42.2

13) 재무설계 서비스 선호도

퇴직연금 적립금의 적립단계 및 은퇴 이후 소진단계에서 전문재무설계사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받을 의향이 있는냐고 DC형 퇴직연금 가입대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재무설계서비스를 받은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근로자는 48.4%에 이르고 있는 반면, 받을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근로자는 27.3%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표 V-24〉 재무설계 서비스 선호도

(n=900, 단위: %, 점)

구분	있다	약간 있다	보통	별로 관심 없다	관심 없다	5점 평균	
전체	7.1	41.3	24.3	20.7	6.6	3.22	
성별	남자	6.8	41.8	23.7	20.7	7.0	3.21
	여자	7.5	40.8	25.1	20.6	6.0	3.23
결혼여부	기혼	7.7	43.7	24.0	18.5	6.1	3.28
	미혼	6.1	36.9	25.0	24.7	7.4	3.10
학력	고졸 이하	7.9	40.2	22.8	25.2	3.9	3.23
	대졸	6.6	42.2	24.6	19.5	7.0	3.22
	석사/박사	10.4	35.1	24.7	23.4	6.5	3.19
연령	20대	5.6	35.8	28.0	24.1	6.5	3.10
	30대	7.9	40.2	22.3	23.1	6.5	3.20
	40대 이상	7.3	47.0	24.0	15.0	6.7	3.33
근무기간	3년 미만	7.7	31.6	25.6	27.4	7.7	3.04
	3~5년 미만	4.3	45.1	25.5	20.1	4.9	3.24
	5~10년 미만	7.0	44.2	24.4	17.4	7.0	3.27
	10년 이상	8.8	45.0	22.1	17.9	6.3	3.32
월급여	200만 원 이하	9.3	32.8	25.9	24.8	7.2	3.12
	201만~300만 원	5.1	44.6	25.6	18.3	6.4	3.24
	301만 원 이상	7.0	46.3	21.5	19.1	6.0	3.29
회사 규모	소기업	6.3	40.8	33.2	16.0	3.8	3.30
	중기업	4.8	42.1	20.7	23.5	8.9	3.10
	대기업	12.6	40.4	22.0	20.2	4.9	3.35

5점 척도로 3.22점으로 나타나 높은 재무설계서비스 의향을 보임에 따라 DC형 퇴직연금에서 재무설계서비스는 주요 수익원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와 같은 재무설계서비스에 대한 근로자의 니즈는 남자보다 여자가, 미혼보다는 기혼에서, 학력수준이 낮고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근무기간이 길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 회귀분석결과

1) DC형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한 추가불입 여부

현재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는 사용자가 적립하는 금액 이외에도 개인이 추가로 납입할 수 있다. 개인 특성별로 어떤 근로자가 추가납입을 하고 있거나 추가 납입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기 위해 로짓(Logit)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상대적으로 젊은 근로자인 20~30대들은 40대 이상 근로자보다 추가납입에 대한 선호도가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동일한 연령이라도 은퇴까지 남은 기간이 많은 근로자들은 상대적으로 추가 불입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기혼자는 미혼자에 비해 추가 불입할 가능성이 낮았는데 이는 기혼자의 경우 자녀 양육비 및 교육비와 같은 지출액이 많아 경제적으로 추가 불입할 여지가 적은 영향일 것으로 판단된다.

건강상태에 따른 추가불입 가능성에 대해 살펴본 결과 건강할수록 추가 불입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건강하여 장기의 노후를 예상하는 사람들은 노후 소득재원 마련에 대한 욕구가 상대적으로 강함에 따라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맞벌이를 하거나 소기업보다는 중기업이나 대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직장의 안정성이 높은 근로자들은 추가불입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상대적으로 수입이 고정적인 사람들이 노후소득 마련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여건이 상대적으로 잘 마련됨에 따라 나타난 결과로 이해된다. 그리고 수입이 많은 근로자일수록 추가 불입에 대한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주택과 같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부동산자산을 노후소득재원 마련을 위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어서인지 추가 불입에 대한 가능성이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부동산 소유가 추가불입에 주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마지막으로 퇴직연금 자산운용 수익률이 높은 근로자들은 퇴직적립금에 추가로 불입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 근로자들 역시 추가불입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V-25〉 추가 불입 여부

독립변수		추정계수	표준오차
연령	20대	-0.773	0.297***
	30대	-0.511	0.210**
남성		0.221	0.167
기혼		-0.694	0.289**
대학졸업		0.256	0.223
서울거주		0.133	0.160
건강함		0.347	0.159**
맞벌이		0.873	0.184***
은퇴까지 남은 기간		0.024	0.009***
기업규모	중기업	0.412	0.175**
	대기업	0.772	0.220***
직장 안정성 높음		0.457	0.226**
로그(수입)		0.363	0.180**
주택소유		-0.229	0.202
퇴직연금 자산운용 수익률		0.033	0.010***
주식투자 여부		0.422	0.161***
_cons		-3.985	1.100***

주: 1) 로짓(Logit)모형을 적용함.

2) 독립변수는 실증분석모델의 설명력을 가장 높이는 것들과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는 변수들을 선정하였음.

2) 운용자산 선호 형태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들은 자신의 계좌에 적립된 퇴직적립금을 자유의사에 의해 자유롭게 자산운용을 할 수 있다. 때문에 근로자 특성별로 자산운용 타입을 분석함으로써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자산운용 및 상품제공 등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운용자산비율에 로그값을 취해 최소자승법(Ordinary Least Square Model)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연령이 낮은 20~30대 근로자들은 상대적으로 공격적인 자산운용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와 30대 근로자들의 위험자산비중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20대는 40대 이상 근로자에 비해 위험자산을 선

호하지만 30대보다는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해외사례 등과 일치하는데 사회초년생인 20대는 자산운용에 대한 경험이 충분하지 않고 금융상품 및 투자에 대한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이해된다.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는 위험자산에 기초한 자산운용을 선호하며, 미혼보다는 기혼자가 위험자산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금융상품이나 투자에 대한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가능성이 있는 고학력자와 서울거주자일수록 위험자산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건강한 근로자들도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맞벌이를 하거나 기업 규모가 큰 회사에 근로하는 사람들은 적립금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특별히 고위험 자산에 투자하지 않아도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어 노후소득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근로여건이나 수입의 안정성과 상관없이 소득 자체가 높은 근로자들은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 근로자들은 퇴직적립금에서 만큼은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식투자를 통해 고위험을 수반하는 자산운용으로 수익률을 제고하고, 퇴직연금 적립금은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싶은 선호가 반영되었거나 아니면 주식투자자들의 경우 경험 수익률보다 오히려 고금리를 제시하는 현 원리금보장형 퇴직연금운용상품들을 선호하는 것에 따른 결과일 수 있다. 반대로, 주식투자와 같은 경험을 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퇴직적립금을 위험자산에 투자하여 고수익을 기대하는 성향이 강한 것으로 판단된다.⁴⁶⁾

46) 금융 및 투자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근로자의 경우 주식투자를 할 것으로 생각되고 그러한 근로자는 퇴직연금 적립금을 위험자산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아 내생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주식투자 여부를 반드시 내생변수라고 단정 지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내생변수가 아닌 금융 및 투자이해도의 대체변수로 해석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주식투자 여부를 나타내는 변수를 제외하고 분석을 할 경우 다른 추정계수에는 큰 변화가 없으며, 이는 주식투자 여부가 내생변수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분석상 발생하는 추가적인 문제는 미미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현재 모형에 포함된 모든 독립변수들이 내생성의 문제가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통계모형이 개발되어 있지는 않으며 특정 변수의 내생성을 확인하기 위

〈표 V-26〉 운용자산 중 위험자산(실적배당) 비율

독립변수		추정계수	표준오차
연령	20대	0.185	0.084**
	30대	0.203	0.064***
남성		0.247	0.057***
기혼		0.143	0.071**
대학졸업		0.149	0.079*
서울거주		0.117	0.057**
건강함		0.135	0.055**
맞벌이		-0.210	0.062***
기업규모	중기업	-0.228	0.063***
	대기업	-0.405	0.076***
로그(수입)		0.217	0.059***
주식투자 여부		-0.127	0.055**
_cons		1.718	0.351***

주: 1) 운용자산비율에 로그값을 취해 최소자승법(Ordinary Least Square Model)을 적용함.

2) 독립변수는 실증분석모델의 설명력을 가장 높이는 것들과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는 변수들을 선정하였음.

수입규모에 따른 자산운용 형태에 대한 분석은 DC형 퇴직연금을 영위하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시사하는 바가 중요할 수 있어 수입을 이차함수형태로 변환하여 재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수입이 증가할수록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지만 수입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는 점감(Diminishing)하는 형태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해서는 도구변수(instrument variable)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변수들의 내생성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표 V-27〉 수입규모에 따른 운용자산 중 위험자산(실적배당) 비율

독립변수	추정계수	표준오차
수입	0.217	0.059***
수입×수입	-0.127	0.055**
_cons	1.718	0.351***

주: 1) 운용자산비율에 로그값을 취해 최소자승법(Ordinary Least Square Model)을 적용함.
 2) 수입을 제외한 다른 독립변수의 영향은 〈표 V-31〉과 동일하여 편의상 도시하지 않음.

3) 퇴직연금사업자 변경

퇴직연금사업자는 신규 근로자들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입된 근로자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때문에 근로자 특성별로 퇴직연금사업자 변경에 대한 가능성을 예측하기 위해 음이항분포(Negative Binomial)모형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가장 중요한 시사점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결과는 연령에 따른 퇴직연금 사업자 변경이다. 연령이 낮은 20~30대 근로자는 40대 이상 근로자에 비해 퇴직연금사업자를 많이 변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근로자, 규모가 큰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또는 직장의 안정성이 높은 근로자들, 즉 고정적인 수입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진 근로자들도 퇴직연금사업자를 상대적으로 많이 변경하고 있다. 하지만 직장의 안정성과 상관없이 수입이 높은 사람들은 퇴직연금 사업자를 변경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주식투자를 하는 근로자들은 퇴직연금사업자를 변경하는 횟수가 많은 반면, 현재 자산운용 수익률이 높은 근로자는 현재의 퇴직연금사업자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표 V-28〉 퇴직연금 사업자 변경

독립변수		추정계수	표준오차
연령	20대	0.462	0.277*
	30대	0.589	0.228**
남성		-0.089	0.200
기혼		-0.233	0.241
대학졸업		-0.295	0.250
서울거주		-0.097	0.199
건강함		-0.246	0.191
맛별이		0.660	0.203***
기업규모	중기업	0.593	0.258**
	대기업	0.611	0.294**
직장 안정성 높음		0.793	0.426*
로그(수입)		-0.519	0.174***
주식투자 여부		0.401	0.194**
자산운용 수익률		-0.022	0.006***
_cons		-0.725	1.041

주: 1) 음이항분포(Negative Binomial) 모형을 적용함.

2) 독립변수는 실증분석모델의 설명력을 가장 높이는 것들과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는 변수들을 선정하였음.

4) DC형 퇴직연금사업자의 선호 연속성

DC형을 선택한 기업 및 근로자는 DB형의 기업 및 근로자보다 이직이 높은 특성이 있으며, 이직한 근로자들은 향후 IRA에 가입하여 적립된 노후소득의 연속성을 높이려 할 것이다. 이직자뿐만 아니라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들이 퇴직 시에는 IRA 등과 같은 퇴직연금제도나 연금형태의 지급을 위한 금융상품에 가입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어떠한 금융기관을 선호하는지에 대한 여부, 특히 현재 선택한 DC형 퇴직연금사업자에 다시 가입할 확률이 높은지에 대한 분석은 DC형 퇴직연금과 함께 IRA 사업을 영위하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분석을 위해 다항로짓(Multinomial Logit) 모형을 활용하였으며, 분석결과 현재 선택하고 있는 DC형 퇴직연금사업자를 향후 IRA 가입 시에도 선택할 확률이 상당히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다른 변수들이 주는 유의한 영향보다도 현재 DC형 퇴직연금사업자로 인한 퇴직연금사업자의 연속성 효과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유의성도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표 V-29〉 DC형 퇴직연금사업자의 선호 연속성 분석

IRA 금융기관	독립변수		추정계수	표준오차
보험회사	DC 보험회사		0.922	0.126***
	연령	20대	-0.384	0.298
		30대	-0.521	0.233**
	남성		-0.399	0.200**
	기혼		-0.121	0.235
	대학졸업		-0.259	0.266
	서울거주		0.179	0.203
	건강함		0.630	0.202***
	기업규모	중기업	-0.243	0.221
		대기업	-0.567	0.277**
	로그(수입)		0.359	0.238
	주식투자		0.194	0.202
	_cons		-3.886	1.259***
증권사	DC 증권사		1.515	0.124***
	연령	20대	-0.096	0.303
		30대	0.228	0.226
	남성		-0.194	0.197
	기혼		0.043	0.226
	대학졸업		-0.097	0.287
	서울거주		0.334	0.204*
	건강함		0.413	0.197**
	기업규모	중기업	-0.113	0.225
		대기업	-0.702	0.280***
	로그(수입)		0.556	0.239**
	주식투자		0.435	0.197**
	_cons		-6.753	1.284***

특히 대기업에 근무하거나, 건강한 근로자, 수입이 많은 사람들은 은행보다는 보험회사와 증권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은행과 보험회사보다는 증권사를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선택하고 있는 DC형 퇴직연금사업자가 IRA의 퇴직연금사업자로서 연속성이 있는지에 대한 분석은 매우 유의하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현상이 보험회사, 은행, 그리고 증권사별로 얼마나 그 연속성이 강하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로짓(Logit)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⁴⁷⁾

보험회사의 경우 현재 보험회사를 DC형 퇴직연금사업자로 선택하고 있는 근로자는 IRA 가입 시 보험회사를 선택할 가능성이 다른 금융기관을 선택할 가능성보다 7.8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은행의 경우 보험회사보다 다소 낮은 7.2배였으며, 증권사의 경우 8.7배에 달할 정도로 퇴직연금사업자로서의 연속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V-30〉 보험회사 선호 연속성

독립변수		추정계수	표준오차	Odds Ratio
DC 보험회사		2.050	0.185***	7.770
연령	20대	-0.401	0.298	0.670
	30대	-0.715	0.231***	0.489
남성		-0.300	0.197	0.741
기혼		-0.189	0.234	0.828
대학졸업		-0.119	0.266	0.888
서울거주		0.110	0.204	1.116
건강함		0.533	0.204***	1.704
기업규모	중기업	0.039	0.222	1.040
	대기업	-0.067	0.277	0.935
로그(수입)		0.161	0.226	1.175
주식투자 여부		0.019	0.201	1.020
_cons		-2.748	1.187**	-

47) 예를 들어, 보험회사에 대한 연속성을 분석하기 위해, 보험회사를 선택한다면 1, 그렇지 않다면 0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종속변수를 설정하였다.

〈표 V-31〉 은행 선호 연속성

독립변수		추정계수	표준오차	Odds Ratio
DC 은행		1.980	0.156***	7.240
연령	20대	0.266	0.252	1.305
	30대	0.136	0.193	1.146
남성		0.274	0.168*	1.316
기혼		0.104	0.192	1.110
대학졸업		0.166	0.234	1.180
서울거주		-0.283	0.170*	0.753
건강함		-0.519	0.165***	0.595
기업규모	중기업	0.124	0.191	1.132
	대기업	0.492	0.234**	1.635
로그(수입)		-0.471	0.197**	0.624
주식투자 여부		-0.325	0.168**	0.722
_cons		1.652	1.038	—

〈표 V-32〉 증권사 선호 연속성

독립변수		추정계수	표준오차	Odds Ratio
DC 증권사		2.156	0.186***	8.638
연령	20대	0.115	0.281	1.122
	30대	0.466	0.208**	1.593
남성		-0.078	0.184	0.925
기혼		0.176	0.210	1.193
대학졸업		-0.049	0.267	0.952
서울거주		0.197	0.190	1.218
건강함		0.201	0.183	1.223
기업규모	중기업	-0.119	0.208	0.888
	대기업	-0.612	0.261**	0.542
로그(수입)		0.482	0.226**	1.619
주식투자 여부		0.377	0.183**	1.458
_cons		-4.720	1.205***	—